

## 중앙아시아 국경분쟁의 해결방안 모색

### Seeking a Solution to the Border Disputes in Central Asia

#### 송금영

1991년 중앙아 5개국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자 급선무는 국경선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었다. 지난 30년간 협상한 결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국경선을 확정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은 이견으로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했다.

국경선의 미확정 배경은 복합적이다. 첫째, 중앙아 국가들은 소련이 구획한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수용하지 않았으며 정세 불안으로 국경협상을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였다.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1990년대 내전과 테러 준동으로 국내 안정과 정권 유지가 최대 현안이였으며 국경 확정 은 부차적이였다.

둘째,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이 접경한 페르가나(Ferghana) 지역의 8개 원격지 영토(포령, Enclave)가 주요한 장애물이였다. 한 국가의 영토 일부가 다른 국가의 영토 내에 위치한 경우 이를 포령이라고 부른다. 셋째, 강 상류국과 하류국 사이의 수자원과 에너지 교환문제이다. 상류국은 하류국에 물을 제공하고 하류국은 천연 가스, 전기를 상류국에 공급하였다. 그간 수자원의 확보를 두고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국경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국경 확정을 위해서는 당사국 간 양자 협상과 병행해서 중앙아의 역내 통합 강화와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영토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서 외부 개입으로 해결이 어려우며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한 해결이 최적의 방안이다. 당사국은 우선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경 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는 점진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아 국가들은 역내 통합을 통해 국경 확정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2024년간 6회의 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수자원 공유, 무역장벽 해소, 국경 갈등의 해소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셋째, 국제사회는 당사국이 무력 충돌을 자제하고 평화적으로 국경선을 확정하도록 계속 지원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안보적 이유로 2022년 9월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간 무력 충돌의 확산을 방지하였다. 넷째, 국경 확정 이후 국경 감시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경관리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당사국은 수자원의 공동 개발과 국경 개방, 그리고 영토 교환으로 신뢰를 회복하였으며 대부분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국경선의 타결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인다.

송금영은 동아대에서 국제정치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외교부에 입부하여 주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근무했으며, 2018년 주탄자니아 대사로 퇴임했다. 현재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저서로는 <러시아의 동북아 진출과 한반도 정책>, <유라시아를 정복한 유목민 이야기>, <아프리카 깊이 읽기>가 있다.

Date & Time: October 22th, 2024. 12:00-13:00

Place: SNUAC Asia Square (3rd Floor)